

## 북한매체 보도 동향

### 1. 농업정책

#### □ 과학영농

- 주체농법을 틀어쥐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로동신문 4.10)
  - 김정일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농업지도기관들과 농업부문 일꾼들은 기술적 지도를 기본으로 틀어쥐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장악지도하며 농촌에서 영농조직사업과 노력, 설비자재, 재정 관리를 개선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말함.
  - 신천군에서는 모 종류별 씨뿌리기에 있어 실정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할 것을 중시하였음. 신천군 협동농장에서는 벼모의 종류별로 생육과정을 따져본 후 군의 지대적 특성과 기상조건, 농사조건 등을 고려하여 모 종류별로 씨뿌리는 양을 새롭게 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지난 기간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군의 실정에 맞게 모내기 최적기를 보장하면서도 벼모가 사름과 가지 치는 기간에도 불리한 기상조건을 극복할 수 있게 속성모와 일반냉상모를 많이 키우도록 하였으며, 모 종류별, 품종별 씨뿌리기 일정계획을 세웠음.
  - 또한 씨뿌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모판재료 보장을 앞세우고 이미 씨를 뿌린 모판이 불리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임. 특히 군에서는 속성모와 일반냉상모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복토와 모판 차단재료를 제때 보장하도록 힘쓰고 있음. 이처럼 신천군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있음.
- 효능이 높은 성장촉진제 (로동신문 4.17)
  - 덕천시 평화협동농장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새롭게 연구해 낸 성장촉진제를 받아들여 온실 오이작황에서 큰 수확을 거두고 있음. 이 성장촉진제를 이용한 이후 오이종자의 발아율이 높아지고 초기생육이 좋아졌으며, 개당 무게가

증가하였음.

- 이 성장촉진제는 농약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여러 가지 병을 미리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며, 원가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함.

## 2. 벼농사

### □ 농사차비

#### ○ 논밭갈이를 본격적으로 (로동신문 4.29)

- 각지 농촌들에서 논밭갈이에 힘쓴 결과,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논갈이 실적은 1.4배, 밭갈이 실적은 1.2배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언급함.
- 각 도, 시, 군에서는 불리한 날씨 조건 속에서도 논밭갈이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부족품, 기름 등을 제때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음.
- 평원군에서는 토양조건에 맞게 트랙터와 부림소를 적극 배합하면서 농장원들이 한 평의 논밭이라도 질적으로 갈아엎도록 하고 있음, 특히 봄철 기후가 건조한 조건에 맞게 포전별로 선후차를 가려 논밭갈이를 질적으로 하여 가뭄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함경북도 농장들의 경우, 대용연료로 트랙터의 가동률을 높여 논밭갈이를 성과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평안북도 박천군에서는 트랙터에 대한 점검보수를 철저히 하여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논밭갈이에서 앞서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 □ 씨뿌리기

#### ○ 영도업적단위들에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로동신문 4.3)

-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에서는 씨뿌리는 기계의 수리정비와 소농기구 준비, 모판 만들기를 끝냈으며 씨뿌리기 일정계획도 봄철의 기상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씨뿌리기 적기를 보장하면서도 생육기일을 앞당기도록 세웠다고 언급함.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는 구체적인 토양 분석 자료에 기초하여 벼모판에 미량원소를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종자살균제에 의한 종자처리 등 앞선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씨뿌리기 일정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및 온철군 금당협동농장에서는 씨뿌리기와 앞그루 감자심기에 힘쓰고 있음.

## ○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로동신문 4.13)

- 정주시 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알곡증산을 위한 당면한 씨뿌리기를 제철에 끝내기 위해 농촌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음. 이에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동, 인민반에서는 수만 톤의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의 포전들에 실어내고 영농물자들을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시의 협동농장에서는 지난 3월 말까지 수로청소사업을 끝내고 모든 양수설비들을 수리하여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음. 아울러 협동농장에서 기술전습을 조직하여 농장원들이 종자소독의 중요성과 기술적 요구를 인지하여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으며, 트랙터 출동식과 농기구전시회, 부림소품평회를 진행하였음.
-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꾼들은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배치를 잘하고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과학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동농장에 씨뿌리기에 필요한 자재들이 제때 보장되도록 힘쓰고 있음. 아울러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부식토와 복토재료를 충분히 마련해 두었음.

## ○ 밀, 보리 씨뿌리기 한창 (로동신문 4.20)

- 양강도 김형권군의 농업근로자들은 밀, 보리 종자를 햇볕에 말리고 고르는 작업을 잘 수행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대흥단군에서는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품종을 배치하고 적기에 씨앗을 묻고 있음.
- 백암군에서는 밀, 보리 면적이 넓은 조건에 맞게 사업을 크게 진행하였으며,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씨뿌리기에 힘쓰고 있음.

## ○ 강냉이를 제철에 질적으로 심자 (로동신문 4.24)

- 각지 농촌들에서는 강냉이 심기가 시작되었는데, 농촌경리 부문 당조직과 농업지도 기관에서는 알곡 증수를 위해 강냉이 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함.
- 강냉이 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직파재배는 씨앗이 싹틀 수 있는 땅속 온도와 습도의 조건을 고려하여 심는 시기를 과학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강냉이 영양단지모 옮겨심기의 경우, 마지막 서리가 내린 다음부터 시작하여 품종과 재배방법에 따라 소출이 가장 높은 시기에 해야 한다고 언급함.
- 강냉이 씨앗을 젖은 흙에 심고 다져주기를 정확히 하며, 씨앗을 묻는 깊이를

균일하게 보장하여 강냉이가 싹틀 때 층하가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강냉이 영양단지모를 뜨기 전날 모판에 물을 충분히 주고 뜨며, 밭에 물을 충분히 보장하는데 힘써야 함.

○ 큰모재배의 우월성 (로동신문 4.30)

- 큰모재배는 벼가 자라는 절반 정도의 기간을 모판에서 키워 해당 포전의 목표이삭수를 이삭당 알 수가 많은 밀아지로 확보함으로써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다수확논벼재배기술임. 모내기를 한 다음 김매기에 드는 노동력이 절약되고 물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모판농사라고도 함.
- 큰모재배는 북한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논벼농사에서 집약화를 실현하여 알곡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우월한 농사방법이라고 설명함. 큰모를 재배하면 논에서 두벌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데, 모판에서 모를 크게 키워 모내기를 하면 포전에서 자라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수확고가 낮은 올종대신 중간종, 중간늦종 등 다수확품종을 뒤그루로 심어 논벼소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앞그루 밀, 보리, 감자의 생육기일을 제때 보장하여 앞뒤그루에서 모두 안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며, 논두벌 농사에서 큰모 씨뿌리기는 5월 상순에, 모내기는 6월 하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함.
- 큰모재배는 냉습지, 지하수위가 높은 논, 생육후반기에 생리적 요인으로 소출이 떨어지는 현상이 심한 논에서 4월 중, 하순에 큰모 씨뿌리기를 하여 6월 중순경에 모내기를 하면 평당 이삭수가 확보되고 병충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논벼농사에 불리한 논과 지대들에서 논벼소출을 높일 수 있게 함. 아울러 자연성 냉해가 심한 동해안 지구에서 냉해로 인한 수확고 감소와 미숙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물코끼리벌레와 벼잎파리의 발생시기가 지난 다음 모내기를 하므로 살충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데서도 큰모재배가 효과적이라고 강조함.

### 3. 밭농사

□ 이모작 동향

○ 앞선 두벌농사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로동신문 4.28)

- 곡산군에서는 해마다 강냉이와 감자 두줄모아심기 방법을 받아들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두줄모아심기 방법은 농작물의 생육기일과 키, 바람 및 일조를 고려하여 겹재배 방법으로 두벌농사를 짓는 집약농법이라고 설명함.

- 지난 시기 강냉이를 두줄로 모아 심으면 강냉이와 감자포기 사이의 공간이 보장되어 작물 사이의 생존경쟁이 약해지고, 강냉이 줄 사이의 넓은 공간으로 바람이 잘 통하게 되고 광합성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뿌리의 기능이 높아지고 영양물질 흡수량이 늘어나게 된다고 언급함.
- 지난 해 평안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는 강냉이를 두줄로 모아심고 앞그루로 감자와 봄보리를 심고 뒤그루로 가을감자를 심는 겹재배 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두었다고 언급함.

## 4. 감자농사

### □ 감자농사 정책

#### ○ 실리 있는 감자종자생산방법 (로동신문 4.28)

- 삼수군 신회협동농장의 일꾼과 농장원들은 올해 감자농사 생산방법을 계획하면서 무비루스 감자종자를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하였음.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무비루스 감자종자 생산량을 종전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완성하였음.
- 농장일꾼들은 농장의 감자농사에 필요한 종자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재배면적을 정하였으며, 무비루스 감자종자 생산의 중요성을 농장원들에 강조하는 등 무비루스 감자종자 생산에 힘썼음.

## 5. 농업기반

### □ 물길공사, 저수지, 물보장 사업

#### ○ 물길굴 공사장에 차넘치는 혁신의 기상 (로동신문 4.12)

-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일꾼과 건설자들은 4월에 들어와 물길 공사를 끝냈음. 특히 공사의 가장 어려운 구간을 맡은 원산시 여단 일꾼과 건설자들은 물이 차오르는 불리한 작업조건에 맞게 양수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물을 처리하고 짧은 기간에 방대한 양의 굴착과제를 끝냈음. 또한 여단에서는 합리적인 공법들을 받아들여 과제를 1.5배 이상 빨리 수행하여 공사 마감일을 앞당겼음.
- 법동군 중대에서는 암질이 불리한 조건에 맞게 여러 가지 공법들을 받아들여 굴

착과제를 제일 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공사기간에 도급기관과 원산지, 법동군의 일꾼, 근로자, 여맹원들은 공사장에 나와 경제선동을 벌이고 일도 같이 하면서 건설자들을 격려했음.

○ 물길굴공사 90%계선 돌파 (로동신문 4.30)

- 군인건설자와 성, 중앙기관, 각 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이 희천발전소 건설에 참여하여 물길굴 공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조선인민군 김용철 소속부대와 물길공사중앙지휘부 아래 여러 여단들에서 맡은 대상공사를 전부 끝냈으며, 조선인민내무군 한경국소속 부대에서 물길굴 피복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공사 과제를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 황해남도여단과 철도성 여단의 일꾼, 돌격대원의 경우, 완공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많은 양의 시멘트와 자갈, 모래 등 공사용 자재들을 갭 안으로 운반해두는 등 물길굴 피복공사를 진행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 물보장대책을 철저히 (로동신문 4.30)

- 5월에 가뭄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측되고, 물을 많이 쓰게 될 모내기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물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함.
-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은 물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지 관개관리소와 농장에서는 흐르는 물과 빗물을 모아 저수지와 저류지에 채워야 하며, 곳곳에 물주머니를 만들고 하천과 개울에 보막이를 하며, 저수지제방과 물길보수에 주력하는 등 더 많은 물을 모아두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언급함.
- 모든 농장에서는 자기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과 특색에 맞게 분수식 관수, 짝지발식 관수, 고랑관수 등 여러 가지 관수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간석지 논에 물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에도 힘써, 관수설비와 관수시설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언급함.

□ 토지정리, 국토관리 사업

○ 부침땅 면적을 늘인다 (로동신문 4.17)

- 자강도에서 농경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에 힘쓴 결과, 지난 3월말까지 유실되었던 토지를 복구하고 밭의 돌을 걸러내었으며, 천 수백 정보의 새 땅을 찾아내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언급함.
- 자강도의 시, 군 일꾼들은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새 땅 개간대상지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노동력과 기계들을 집중하여 더 많은 새 땅을 찾기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유실된 토지를 복구하는 사업에서 강계시, 희천시, 송원군, 용림군,

만포시 등이, 새 땅 찾기 사업에서 강계시, 화평군, 만포시 등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아울러 새 땅 찾기 실적은 현재 계획의 90%계선을 넘어섰고, 유실된 토지를 복구하는 투쟁이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언급함.

- 자강도의 농업부문 일꾼들은 새로 찾아낸 농경지에서 올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대책을 세웠으며, 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에 나가 새로 찾아낸 농경지에 자급비료와 흙보산비료, 소석회를 더 많이 내어 지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음.

## 6. 산림

### □ 산림조성 및 보호

-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로동신문 4.8)
  - 김정일은 “도, 시, 군을 비롯하여 해당 단위들에서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맞게 양묘장을 꾸리고 나무모 비배관리를 잘하여 튼튼한 나무모를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함.
  - 황해북도의 시, 군 산림경영경영소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 봄철나무 심기 사업에 보내주고 있음. 수안군 산림경영소에서 생산한 성이깔나무, 평양 뽕뿌라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 수백만 그루 중 60만여 그루의 창성이깔나무모는 군 내 산에 심었음.
  - 상원군에서는 창성이깔나무, 분홍꽃아카시아나무 등 수종이 좋은 나무모 생산을 앞세워 봄철나무 심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군산림경영소의 일꾼과 근로자들은 나무모 뜨기를 기계화하여 나무모 생산의 질과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고 언급함.

## 7. 기타 작물

### □ 과수

-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현하자 (로동신문 4.4)
  - 해마다 과수원조성사업이 힘 있게 벌어져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 생산기지가

꾸러지고, 집집의 뜨락에도 과일나무가 심어져 살구동네, 추리동네, 감나무 마을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함. 아울러 사과, 복숭아를 비롯한 새로운 과일 품종이 육종되고 있으며, 사과, 배를 위주로 하면서 복숭아, 살구 등 다양한 수종의 과일나무와 울과일, 늦과일나무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심어 품종구성이 다양해졌다고 언급함.

- 과수학연구소와 과수시험장, 과수묘목농장이 현대적으로 꾸러지고 과수과학 연구사업과 기술인재 양성 사업이 힘 있게 추진되어 자체의 힘, 기술로 맛 좋고 생산성 높은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를 생산·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아울러 현대적인 과일생산기지에 새로운 관수방법이 널리 도입되고 과수 기계공장과 농약생산 공장이 꾸러져 많은 농기계와 농약이 생산·공급되었다고 언급함.

#### ○ 100여만 그루의 키낮은사과나무를 (로동신문 4.21)

- 각 도인민보안국 돌격대원들은 올해 봄철에 들어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새로 토지 정리된 포전들에 100여만 그루의 키낮은사과나무를 심었음. 이에 우량품종의 키낮은사과나무 밭 면적이 새로 수백 정보 늘어나게 되었음.
-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등의 인민보안국 돌격대원들이 키낮은사과나무의 활착률을 100%로 보장한다는 목적 하에 나무심기에 힘쓴 결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100여만 그루의 키낮은사과심기를 끝냈음.

### □ 남새

#### ○ 남새모 옮겨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로동신문 4.6)

- 김정일은 “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부식물입니다.”라고 말함.
- 낙랑구역 유소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는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앞선 재배 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지난 해 농장의 일부 포전에서 받아들여 효과를 거두었던 성장촉진제를 확보하여 다시 한 번 사용하였음. 아울러 수십 개의 구덩이를 파놓고 물을 넉넉하게 확보하는 등 남새모 옮겨심기에 힘쓰고 있음.
- 사동구역의 남새전문협동농장에 내려간 사동구역 일꾼은 앞선 모기르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실한 남새모를 키워내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씨레질과 이랑만들기에 힘쓰고 있음. 또한 양수설비를 수리, 정비하고 물길을 정리하는 등 물 보장 대책을 마련하였음.

### □ 벼섯, 약초

- 많은 버섯을 생산한다 (로동신문 4.28)
  - 북창버섯공장에서는 계절에 구애되지 않고 느타리버섯, 참나무버섯 등 여러 가지 버섯을 생산하여 군내 주민들과 탁아소, 유치원 등에 공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기 위해 버섯 기르기에 필요한 기질을 많이 생산하여 군 내 사회급양망과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주고 있음.
  - 이 공장은 과학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안전하게 버섯을 생산함으로써 한 해 수십 톤에 달하는 버섯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음.
- 약초재배를 균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로동신문 4.29)
  - 약초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적지를 바로 선정하고 씨뿌리기를 제때 보장하는 것은 봄철 약초재배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언급함. 보건성 일꾼들은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약초재배월간 지휘부를 조직한데 이어 사업의 성과적 실현을 위해 보건, 농업, 국토관리,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연관 부문 일꾼들과의 긴밀한 협동으로 많은 단위들에서 전례 없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평안남도, 평안북도의 전문약초 재배단위인 시, 군 고려약공장들과 약초관리소, 도약초농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백지, 시호를 비롯한 수십 가지의 약초 씨뿌리기를 진행하고, 5월 초에 심게 될 약초들에 대한 모판관리를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협동재배 단위들에서는 유기농법의 요구대로 질 좋은 자급비료, 흙보산비료를 받게 내기 위한 사업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청진시, 김책시 등에서는 이미 수백 정보의 약초산 조성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함.

## 8. 기타 보도 동향

### □ 농기계

- 대용연료를 적극 이용 (로동신문 4.3)
  - 김정일은 “우리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는 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대고조의 불길도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지펴올리고 강성대국의 대문도 우리의 손으로 열어제껴야 합니다.”라고 말함.
  - 각지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대용연료발동발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농기

계 수리와 부속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농업성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대용연료 발동발전기를 도입한 전국의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올해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70여 중, 수만 개의 부속품을 생산, 재생산함으로써 트랙터와 농기계수리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황해북도에서는 시, 군 농기계작업소에서 대용연료 발동발전기를 만들어 자체로 전력을 생산하여 부속품 생산과 농기계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황주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2대의 대용연료발동발전기로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부속품을 가공하여 수백 대의 트랙터 수리를 보장하고, 수십 중, 1만 7천여 개의 농기계 부속품을 생산하였음.
- 평안남도에서도 대용연료 발동발전기를 통해 자체로 전력을 생산하여 농기계 수리에 이용하고 있음. 대동군 농기계 작업소에서는 벼거를 이용하는 발동발전기를 돌려 많은 부속품을 생산 및 재생함으로써 백수십대의 트랙터대 수리와 수십대의 연결농기계 수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음.

#### ○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여 (로동신문 4.12)

- 함흥시 회상구역에서는 올해 농사를 잘 짓기 위하여 농기계 수리정비와 농기구 수리 및 생산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였음. 경영위원회 일꾼들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 수리정비를 위한 협의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잘하여 구역 안의 트랙터와 연결차들을 수리하였음. 또한 대용연료에 의한 발동발전기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설치해놓고 농기계 부속품 생산에 힘씀.
- 구역에서는 새로운 연유절약기를 협동농장의 모든 트랙터에 설치하여 기름을 적게 쓰면서도 가동률을 높이고, 논밭갈이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음. 또한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중소농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수리·정비하는 사업에도 힘써 협동농장에서 필요한 중소 농기구들을 원만히 확보하였음.

#### □ 농촌지원

##### ○ 수송조직과 지휘를 기동성 있게 (로동신문 4.27)

- 개천철도국에서 농촌에 보낼 물동 수송에 큰 힘을 쏟고 있음. 국에서는 농업 부문의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영농물자들을 제때 수송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기관차와 화차들을 우선적으로 배차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아울러 역별, 구간별 화차배치 상태와 유동상태, 물동의 확보정형과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의 진행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해나가고 있음.
- 수송지휘를 맡은 일꾼과 사령원들은 방향별로 집중수송열차를 편성해주는 한편, 목적지까지 영농물자들을 제때 보내주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해나가고

있음. 아울러 구장청년역의 일꾼과 종업원들은 상하차 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와 영농물자들을 제때 실어보내기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음.

○ 양수동력보장 사업을 빈틈없이 (로동신문 4.27)

- 황해북도 송배전부에서는 농사에서 양수동력을 보장하기 위해 도안의 전력소비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타산을 바탕으로 협동농장들에 대한 전력보장 대책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있음.
- 책임일꾼들은 송변전 시설들이 넓은 지역에 널려있는 조건에 맞게 직접 현지를 돌아보면서 전력공급 정형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음. 황주군 송배전소와 사리원시송배전소의 일꾼과 종업원들은 송전선들에 대한 보수정비에 주력하여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고, 양수설비 보수를 적극적으로 하여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때 퍼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